

중국의 미래: 19대 공산당 대회 이후 시진핑 권력 강화와 중국 정치체제 전망

함명식 (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)

중국의 꿈(中國夢)과 국가 대전략

- 두 개의 꿈
 - 2020년(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)
 - 2050년(중국 국가 창건 100주년)
- 발전전략
 - 2020-2035년: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
 - 2035-2050년: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

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중요성

-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
-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이 추진할 핵심 정책 결정
- 2017년 10월 베이징 개최:
- 덩샤오핑 사후 개최된 당대회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
- 단기적 측면: 시진핑 집권 2기 동안 집행될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
- 장기적 측면: 시진핑 체제 하의 정치시스템이 중국 내부 정치와 국제 정치에 발생시킬 파장

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주목 이유

- 시진핑 집권 2기 일인지배체제의 강화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
- 시진핑 집권 2기 강대국화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국내정치

• 변화

-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: 일인지배체제 강화
- 마오쩌둥: 자주독립(站起来) - 덩샤오핑: 경제발전(副起来) - 시진핑: 부국강병(强起来)
- 자신의 이름이 병기된 국정철학을 지도 이념으로 당헌에 삽입: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
- 이전에는 은퇴와 동시에 삽입되고 개별 지도자의 이름이 병기되지 않았음 (3개 대표론, 과학발전론)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국내정치

• 변화

- 후춘화, 천민얼 등 차기 지도자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하지 못함
- 공산당 인선 과정에서 민주추천회가 실시되지 않음: 시진핑 관할 하에 면담조사방식이 채택
- "격대지정"의 관례가 깨짐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국내정치

• 변화

- 19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차세대(6세대)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음
- 복수세대 구성관례 사라짐: 19기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5세대로 구성
- 중앙위원회 정치국원들이 총서기에게 매년 서면보고를 의무화: 기존에는 정치국원들이 중앙위원회에만 보고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국내정치

• 지속

- 중앙위원회 주석제의 부활이 없었음
-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25명,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
- 7상8하 원칙의 유지(68세부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음)
-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배제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국내정치

• 지속

- 파벌의 유지: 시진핑 계열(시진핑, 리잔수, 자오러지),
범상하이방 계열(왕후닝, 한정), 공청당 계열(리커창, 왕양)
-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보면 파벌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
25명의 정치국원으로 확대하면 14명이 시진핑 계열.
18기 4명에서 큰 폭으로 확대

제19차 당대회 이후 국내정치 전망

-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강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
- 기존 중국 정치 안정을 가져왔던 정치제도에 변화가 발생
- 엘리트 정치(합의제)의 쇠퇴 가능성
- 하지만 엘리트 정치의 전면적 분열로 이어질 조짐은 아직
보이지 않음
- 일인지배체제 강화→강성 권위주의 정치체제 가능성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**핵심 키워드**
-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의 꿈
- 두 개의 백 년을 통한 중화민족 부흥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**외교 패러다임의 변화**
- 마오쩌둥 시기: 중국외교 1.0=혁명외교
- 덩샤오핑 시기: 중국외교 2.0=발전외교
- 시진핑 시기: 중국외교 3.0=강대국외교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시진핑 집권 1기 외교 성과
 - 홈그라운드 외교: 일대일로,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(AIIB), 항저우 20회의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(APEC)
 - 자유무역주의의 선도자, 글로벌 저성장 시기 전 세계 GDP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창출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신형국제관계
 - 18차 당대회: 신형대국관계보다 확장된 개념
 - 강대국외교, 주변외교, 개도국외교, 다자외교, 공공외교 포함
 - 중국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규정하며 이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할 것을 암시
 - 서구 리더십을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 제시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인류운명공동체
 - 주변국을 대상으로 했던 운명공동체 개념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확대
 -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

제19차 당대회 이후 변화 상황: 대외정치

- 일대일로의 당장 삽입
 - 중국의 강대국화 수단
 - 미·중 간 규범 경쟁의 본격화

제19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치 전망

-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→강대국 외교로의 전환
-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 창출
- 이를 위한 규범 경쟁의 본격화
- 중국 핵심 이익의 범주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마찰 증가 우려

제19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치 전망

- 시진핑 정권의 연착륙
 - 일인지배체제 강화, 엘리트 정치 유지, 경제 뉴노멀(新常態) 상황의 극복, 민족주의 고조, 강성권위주의로의 회귀
 - 강성외교의 지속
- 시진핑 정권의 경착륙
 - 엘리트 정치의 분열, 경제상황의 악화, 민족주의 고조
 - 외교정책에서 돌파구 마련